

충청북도 문화재단 그 아름다운 시작을 위해

인터넷뉴스부 , 2009-07-28 오후 1:46:06



▲ 김영대 - 충주문화원 사무국장

요즘 '충북 문화재단'의 설립을 두고 문화예술계가 술렁이고 있다. 어떻게 설립이 될 것인가· 누가 그 수혜자가 될 것인가· 우리지역이 소외 받지 않을까· 등의 문제는 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관심거리는 소외와 분배의 문제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는 중앙과 지역의 역학적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사람살이의 모든 일들은 늘 중앙과 주변이 존재해 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대립적 요인들이 존재하게 된다. 중앙은 중앙대로의 인구와 규모를 논리로 하는 의견이 존재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지역 소외를 이유로 상대적인 관심과 집중적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중앙과 지역 문제의 현실이다. 과연 누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제대로 된 충북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대립적 태도는 옳지 않다. 중앙은 지역을 안배하는 포용력을 갖고 참여해야하고 지역은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중앙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도내의 문화예술인들이 협력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음성이나 단양 괴산 등과 같은 군 지역에 문화 관련 인사들이 참여 할 수 없다면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더 많은 갈등과 반목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문위원회를 확대 재편하여 지역적, 분야별 소외가 생기지 않도록 포괄적인 수용이 검토되어야 하며 소위원회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문화재단의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과 각 문화예술 분야에서 느끼고 있는 소외감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논의 과정을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면 지금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불만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한결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문화예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공정성은 확보되고 있다. 그러나 자칫 민간이라는 이름의 문화 권력기구에 의해 문화예술의 특정분야나 지역이 분배에서 소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단 참여자들 중심의 기금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이는 재단설립에 참여하는 이들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요구일 것이다. 재단 설립에 참여하는 이들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투명성을 통해 혹자들의 우려가 기우임을 보여 주어야한다. 행정가들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의 지원과 정책이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전문성이 심화되고 적재적소에 투자가 이루어져 문화 예술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의견 공유과정과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공정성은 물론이고,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금이 적음을 탓하고 그를 이유로 문화재단의 불필요론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은 만족 할 만 하지는 않더라도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합심하고 협력 한다면 기금확보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충북문화재단의 설립이 시대적 요구임을 부정하는 이는 누구도 없다. 단지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충북문화재단의 설립과 그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지역과 분야의 소외 문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참여와 분배의 문제, 진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의 문제 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일이다.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충청북도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다소간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은 의견차의 간극을 줄여줄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대응하고 극복해 나간다면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도민 모두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다.